

코로나 언제 끝날까 “막바지” vs “3년 더”

미국 전문가들 진단

낙관론자 “공중보건 해소”

신중론자 “빨라도 내년봄”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를 놓고 여전히 중론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비율이 절반을 돌파했는데도 델타변이의 기습으로 4차 재확산에 직면한 상황이다.

공정론을 제기한 쪽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세운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모니카 간디 교수는 “9월 중반이나 후반부터 확진자가 급감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가 의학 교수에겐 고민거리가 될 것이며, 공중보건에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진단의 근거로 역대 호흡기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및 자연적 노출로 면역이 형성되면서 종식됐던 전례를 들었다. 특히 바이러스가 인체 면역을 뚫고 변이를 거듭하긴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약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올여름 미국을 강타한 델타변이가 코로나19 위력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간디 교수는 짚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이지키엘 이매뉴얼 교수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있다”면서 “인류는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2~3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에 안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하루에 1천명 정도가 숨지고, 수많은 아이가 입원한다. 이는 일상 복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인이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시점이 최소 2022년 봄은 돼야 하며, 이보

다 훨씬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매뉴얼 교수는 내다봤다.

다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끝이 있다는 견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수많은 전염병이 풍토병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는 전염병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 독감이나 감기 같이 일상에 등장하는 상황으로 끝난다는 뜻이라고 WP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날은 언제 올까.

일각에서는 이미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은 지났다는 진단을 제기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제이 바타차리아 교수는 “이 질병의 비상 사태는 끝났다. 코로나19를 200개 질병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이런 일상 복귀의 동력이 백신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신으로 고령자, 기저질환자 같은 취약층에서 사망 및 입원을 줄인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으며 “전염병의 종착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일본 총리 유력후보

고노·이시바·기시다

내달 임시국회서 지명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후보로 거론되는 3인방인 고노 다로,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는 각자의 색깔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일본의 유권자들은 이들의 장점으로 고노 행정개혁담당상의 경우 ‘발신력’(메시지 전달 능력)을,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인품’을, 기시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개혁의지’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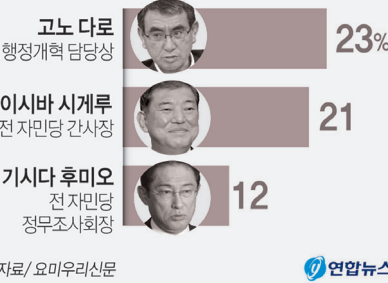
요미우리신문은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42명에게 유·무선 전화로 ‘자민당 정치인 중 차기 총리로 누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고 질문했다.

응답자의 23%는 고노 담당상, 21%는 이시바 전 간사장, 12%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꼽았다.

‘차기 총리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고노 담당상을 선택한 유권자의 경우 “발신력이 있다”가 88%로 응답 비

일본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

요미우리신문이 9월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42명 대상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자료/요미우리신문

중이 가장 높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인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가 있다”가 79%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는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노, 이시바, 기시다 간 3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는 다음 달 상순께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스가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로 지명된다. /연합뉴스

중국 군용기 대만 상공 무력 시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가 대규모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ADIZ)에 들어가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이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전날 전투기와 폭격기 19대를 대만 인근 상공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공군은 이번 공중 무력 시위에 Y-8 전차 교란기 1대, H-6 폭격기 4대, J-16 전투기 10대, SU-30 전투기 4대를 동원했다.

H-6 폭격기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기종이다.

이번 무력 시위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인 군용기 28대로 대만 상공을 압박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은 9월 들어 지난 2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대만 상공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플리크 광장에서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 회원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난민들의 재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 EPA-연합뉴스

탈레반, 아프간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수업도 성별 구분해 진행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여대생의 복장과 수업 방식 등을 규제하는 교육 규정을 발표했다.

6일 AF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교육 당국은 지난 4일 새롭게 마련한 규정을 기반으로 아프간 사립 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은 아바야를 입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쓰도록 명령했다.

이슬람권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입는 아바야는 얼굴을 뺀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긴 통옷이다.

탈레반은 과거 5년 통치(1996~2001년) 시절 여성 인권을 탄압했다. 당시 여성들은 교육·취업 기회를 빼앗기고,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했으며 강제 결혼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탈레반은 지난달 15일 20년 만에 재집권 후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하잡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서 집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니캅은 눈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고, 부르카는 눈 부위마저 망사로 가려져 있다.

이슬람 여성 의상에



탈레반은 당초 약속과 달리 여대생들에게 하잡이 아닌 니캅을 쓰라고 명령한 것이다.

탈레반은 수업도 성별로 구분해 진행하도록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커튼을 쳐 남·여학생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여학생들은 여성 교원에게 서만 수업을 받도록 하고, 여성 교원 확보가 어려우면 교단에 섰던 경력직이 있는 ‘노인’ 남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학생들은 수업 후 남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교실에 머물러야 하며,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법령은 탈레반의 아프간 첫 통치가 끝난 2001년 이후 급증한 사립

대학들에 적용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 교수는 “탈레반이 발표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획”이라며 “우리는 충분한 여성 교원이나 교실 공간을 갖고 있지 않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이어 “다만 여성들이 학교나 대학에 가도록 허용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 교육 당국의 니캅 착용 등 명령을 아프간 여성들이 그대로 따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일 헤라트시에서 여성 50여명이 거리로 나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여성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했고, 3일과 4일에는 수도 카불 등 여러 지역에서 거리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화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